공공도서관 장서문제의 재인식

- 현대사회 지식흐름의 문제와 관련하여[1]

김 영 기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박사과정〉

차 례

1. 정보사회
2. 지식과 정보의 왜곡현상
3. 한국사회 지식흐름과 관련한 공공도서관 장서문제
4. 공공도서관 장서연구 지평의 확대
1) 도서관의 사회사
2) 장서형성의 실존적 요인
3) 장서의 성향
5. 공공도서관 장서 들여다보기
6. 마무리
참고문헌

1. 정보사회

현대사회에서 정보란 말만큼 흔하고, 어떤 다른 말이라도 붙여쓰면 뜻이 통하게 되는 말은 드물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심지어 현대사회가 정보사회라고 불릴 만큼 정보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것을 말해준다. 어떤 사람은 인류의 역사에 나타난 세가지 전환점으로, 인간을 정착하게 만든 농업혁명과 대량생산을 가능하게 한 산업혁명에 이어 정보혁명을 꼽기도 한다. 현대사회는 情報過多 사회이다.[2]

그러나 '정보의 홀러 넘침'이란 말을 대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두가지 대립되는 흐름이 존재하고 있다.[3] 하나는 '정보의 바다'라는 말로 대표되는 긍정적인 입장이고, 다른 하나는 '정보의 쓰레기'로 표현되는 다소 부정적인 입장이 그것이다. 우선 컴퓨터의 정보처리 기술과 데이터 통신기술의 발달에 근거한 '정보의 바다' 편에 설 경우, 누구나 원하기만 하면 어떤 정보든지 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쉽게 뛰어 넘을 수 없는 몇 가지 함정이 가로놓여 있다. 이 함정은 몇 개의 예만 들어보면 바로 드러

1) 이 연구는 다음의 글과 짝을 이루고 있다. 김정근·김영기, 「공공도서관 이용자문제의 재인식」, 『학술연구에서 글쓰기의 혁신은 가능한가』 (한울, 1996), 41-95쪽.

2) D. Bell은 『The Coming of Post-Industrial Society』와 『The Social Framework of the Information Society』등에서 현대 정보사회의 특징으로 교육이 사회계층화의 주요 인자가 되며, 이론적 지식이 사회혁신과 정책형성의 중심적 역할을 하게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D. 벨, 이동만 옮김, 『정보화사회의 사회적 구조』(한울, 1987)). 현대 정보사회에 대한 벨의 이러한 인식론적 관점은 자본주의 사회의 진전 과정에서 '자본'이 담당했던 역할을 후기 자본주의사회로 접어들면서 '지식과 정보'가 그 역할을 일정한 정도 대신하게 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3) 이와 관련된 문제를 도서관과 관련지어 폭넓게 논의한 것으로 김정근 편, 『디지털 도서관 - 꿈인가, 광기인가, 현실인가』(민음사, 1997)를 참조할 수 있을 것이다.

난다.

첫 번째로 들 수 있는 것은 '누구나'라는 말이 갖고 있는 함정이다. 우선 정보의 바다에 뛰어들기 위해서는 고가의 컴퓨터 장비를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 이 장비의 가격이 점점 내려가고 있다고는 하지만, 새로운 제품의 급속한 등장으로 인한 하드웨어의 상대적 수명을 감안한다면, 오히려 그 가격은 날로 올라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누구나'라는 말을 붙이기는 어려울 것이다. 물론 대기업의 사무실이나 대학 등에서는 상대적으로 이러한 장비에 접근하기가 쉽겠지만, 우리 사회에서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한 편이다. 다음으로 이러한 장비를 구비해 놓았다 하더라도, 필요한 프로그램을 제대로 설치하기 위해서는 꽤나 까다로운 지식을 필요로 하며, 날로 발전하는 새로운 응용프로그램을 따라잡는 것 역시 적지 않은 노력과 시간을 필요로 한다. 이 밖에도 '누구나'라는 말에 주저없이 고개를 끄덕이기 어려운 요소는 더 많을 것이다. 따라서 정보의 바다에 뛰어들기 위해 이러한 모든 조건을 구비하고 있는 사람은 우리 사회에서는 선택된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편이 합당하다.

두 번째 함정은 '원하는 모든 정보' 속에 담겨 있다. 정보는 주로 종이와 디지털 형식으로 존재하며, 종이형태의 정보 중에서 극히 일부가 디지털 형식으로 변환·재생산된다. 물론 처음부터 디지털 형식으로 생산되는 정보가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그것 역시 어떤 식으로든 종이형태로 된 정보에 기반을 둔 것이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정보는 정보생산자의 필요에 의해 생산되며,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본의 논리에 들어맞는, 즉 이윤을 남길 수 있는 지식과 정보가 중심이 되어 적극적으로 생산·유통된다. 따라서 가치 있는 모든 정보가 생산되는 것은 아니며, 게다가 모든 정보가 양적·질적으로 같은 비중으로 유통되는 것은 더욱 아니다. 모든 지식과 정보는 생산과 유통, 그리고 축적 과정에서 어떤 형식으로든지 선택되며 변환 또는 왜곡될 소지를 충분히 안고 있는 것이다.

반면에 '정보의 쓰레기'라는 비판적인 입장을 취할 경우 현대사회는 극히 일부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 놓은 정보를, 많은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면서, 생산자와 소비자의 입장 차이를 제거한 상태로, 원한다면 볼 수 있는 - 때로는 원하지 않는 경우라도 볼 수밖에 없는 - 그런 사회가 되어 버린다. 다시 말해 범람하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정작 우리가 필요로 하는 정보는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으며, 이러한 정보의 쓰레기더미 속에서 진실하며 유효한 정보를 가려내기가 더욱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극단적인 사람들은 현대 정보사회에서 성공한 것은 음란정보와 광고 뿐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정보화의 체제 속에서 우리 역사와 사회에 책임 있는 지식의 유통은 홀대받고 있는 것이다.[4]

4) 김영민, 「책의 운명 - 정보혁명과 '뿌리깊은 진보'」《출판저널》 제218호(1997. 7. 20), 9쪽.

2. 지식과 정보의 왜곡현상

현대사회의 지식·정보현상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정보의 '흘러 넘침' 문제와 맞물려 고려해야 할 것은 '지식과 정보의 왜곡현상'에 관한 문제이다. 이미 우리 사회의 지식·정보흐름이 심각하게 왜곡되어 있다는 사실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특히 문화나 정보의 독점 혹은 종속 현상은 국가와 국가, 지역과 지역, 계층과 계급, 사회의 각 영역들 사이에 정보의 양적·질적 차이가 현저할 뿐만 아니라, 문제에 접근하는 방법이나 관점에 있어서도 나타나고 있다. 심지어 프랑스의 대표적인 후기 구조주의자의 한 사람인 미셸 푸코는 현대사회의 커다란 특징 중의 하나로서 지식이 절대군주의 권위를 대신해서 어떤 행위가 옳고 어떤 행위가 그른지를 판단하는 척도가 되었다고 말한다. 또한 이런 지식을 사회통제의 도구로 삼아 누가 정상인이고 누가 비정상인 인지 구분해 놓고, 그 구성원을 통제하고 심지어 길들인다고 까지 주장한다.[5] 푸코의 말을 빌린다면 세상에서 통용되는 지식과 정보가 이 사회가 현실을 통제하는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는 것이다.

현대사회에서 지식과 정보가 유통되는 경로는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다. 그 매체만 보더라도 전통적인 방식으로 신문과 방송, 서적 등이 있으며, 최근에는 인터넷을 비롯한 컴퓨터 통신도 한 영역으로 자리잡은 상태이다. 그 중에서도 서적은 방송이나 신문 등의 다른 매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노출되어 있으면서도, 그 폭과 깊이 면에서 볼 때 훨씬 더 지속적이고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6] 그것은 서적이 텔레비전이나 영화, 비디오 등의 매체들처럼 한두 시간 안에 시작과 끝이 있거나 신문처럼 일시적이고 단편적인 내용을 다루는 것이라기보다, 꽤 긴 시간에 걸친 인내의 과정을 겪어야만 소화될 수 있는 것이 많기 때문이다. 그만큼 책에 나타난 내용은 의식의 깊은 곳까지 침투하게 된다. 따라서 다른 매체들이 동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상대적으로 직접적이고 일시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반하여, 책의 영향은 보다 장기적이며, 때로는 몇 세대에 걸쳐 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7] 책의 영향은 눈에 쉽게 드러나지도 않고 또 당장에 나타나는 일도 드물다. 뿐만 아니라

5) 조흡, 「힘, 몸, 그리고 성 - 미셸 푸코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인물과 사상 4》(개마고원, 1997. 11), 309쪽.

6) 이와 관련하여 세계적인 영화 제작자인 스티븐 스필버그의 고백을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 "나는 영상시대를 만든 사람 중의 하나이고 영상적 상상력의 인물이기도 하다. 그러나 나의 상상력은 책읽기에서 나온 것이다." (이중한, 「책은 창조적 상상력의 텍스트인가 - 정보화시대, 출판의 입지와 쟁점」, 《출판저널》 제218호(1997. 7. 20), 6쪽에서 재인용).

7) 대표적인 예로 고전을 들 수 있다. 고전은 두고두고 읽히며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다. 심지어 많은 고전이 이미 그 내용상으로는 유효성을 상실했다 하더라도 고전으로서의 가치는 여전히 갖고 있다. 고전이 고전일 수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로 시대정신을 충실히 반영한 점을 들고 있다. 고전의 역할을 강조한 다음의 글도 음미해 볼만할 것이다.
"(고전을) … 펴서 그 세계에 눈뜨게 되면 인류 역사와 그 향방을 가늠케 하는 잣대로서 부족함이 없다. 무릇 고전이란 다만 낱낱의 책이 아니라, 한 사회와 한 문화권이 사고하고 상상하는 길을 대변해 주고 또 형성하기 때문이다." (김영민, 『고전평설』 (철학과현실사, 1996), 8쪽)

책의 영향을 검증해 내는 작업도 그리 간단한 것이 아니다.

대부분의 책은 개인 장서의 형태, 서점에 진열되어 있는 형태, 그리고 도서관의 서가에 배열되어 있는 형태 등의 모습으로 존재한다.[8] 그 중에서 개인장서의 경우 학술서적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장서는 일회성에 지나지 않으며, 매우 제한적으로만 다시 읽히는 것이 보통이다. 서점에 진열되어 있는 책의 경우도 신간 위주로 그 유통경로가 극히 한시적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도서관의 장서로 존재하는 책은 끝없이 축적되며 그 영향 또한 다른 존재형태에 비해 훨씬 지속적이다. 특히 불특정 다수에게 무제한으로 노출되어 있는 공공도서관 장서의 영향은 그 중에서도 으뜸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책 한권 한권의 의미가 이러하다면, 수십년 동안 축적된 장서의 영향은 가늠하기조차 어려울 것이다. 이처럼 엄청난 영향력을 갖고 있는 공공도서관의 장서가 생산과 유통, 그리고 축적 과정에서 어떤 형식으로든지 선택, 변환 또는 왜곡되어 왔거나 어느 한쪽 방향으로 치우쳐 있을 가능성은 얼마든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공공도서관 장서에 대해 우선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이다.

KDC 분류번호에 따라 가지런히 정돈된 저 서가의 내면에도 질서란 것이 존재하지 않을까. 도서관의 서가에는 누군가가 의도하였든 그렇지 않든 간에 반드시 어떤 흐름이 있을 것이다. 누군가의 지속적인 의도가 있었다면 그 경향은 뚜렷이 드러날 것이다. 겉으로 드러난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공공도서관의 장서에는 한국 현대사의 질곡이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을 것이다. 그것은 눈에 쉽게 띄는 우세한 특징으로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음모와도 같은 모습으로 존재할 공산이 더 클 것이다. 장서 정책이 구체적이지 못하거나 아니면 그러한 정책이 아예 실종되어버린 경우라면, 도서관의 서가가 그 사회의 지배적인 이데올로기에 복무하는 장서들로 채워지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흐름, 의도, 편향성, 이데올로기 또는 특징 등으로 불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이며 또한 그 본질은 어떠할까? 그리고 그 본질과 훌륭한 서가의 기준과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

이러한 왜곡이나 편향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때로는 교정되기도 했을 것이며, 때로는 조장되었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현상이 제법 오랜 기간 지속되었다면 이를 고착된 현실로 받아들이게 되어 치유의지 자체가 사라져 버릴 수도 있다. "도서관은 민중(이용자)이 무엇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를 규제해서는 안되지만 민중이 무엇에 대해 생각하는가를 결정

8) 이 외에 그 수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도서대여점도 책의 한 존재형태로서 자리잡아 가고 있다. 베스트셀러를 중심으로 한 신간을 재빠르게 구해두고 회원도 모집하면서 운영해 나가는 모습이 얼른 보아 서양에서 근대 공공도서관이 탄생하던 시절의 모습과 흡사한 듯도 하다. 차이는 조금씩 있겠지만 잡지도 제법 갖추어 놓고, 무협지나 만화 등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도서대여점의 서가를 메우는 기준은 '잘 나가는' 것이다. 이용자의 요구에 충실하여 장사만 잘 되면 그만이다. 내용이라든가 영향 등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무관심할 수밖에 없다. '잘 나가는 책'만 갖고 경쟁한다면 공공도서관은 이에 당할 재간이 없다.

하는 일에 대한 원조는 적극적으로 해야한다"[9] 고 하는 것이 도서관 활동의 기본노선이라고 볼 때, 다음의 진술들은 공공도서관의 장서를 지칭해서 나온 말은 아니지만, 책에 대한 혹은 책을 통한 현실통제 가능성을 뒷받침해 주는 내용들이다.

(우리는) 지배담론에서 규정한 단일한 모습으로 스스로를 인지해 왔고, 그래서 주체성과 능동성을 잃은, 또 다양성이 무시된 존재로 살아왔다.[10]

'침묵의 문화(culture of silence)'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다. 그리고 그들의 무지와 무기력은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지배 및 가부장적 사회상황 전체에서 비롯되는 결과임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자기세계의 구체적인 현실들을 파악하고 대응하도록 갖추어지고 자극 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판적인 각성과 반응이 불가능한 상황 속에 '함몰되어(submerged)' 있었다. 프레이리는 기존의 모든 교육제도야말로 이 침묵의 문화를 영속시키는 중요한 도구들 중의 하나라는 사실을 명확히 알게 되었다.[11]

언론의 왜곡, 편파보도보다 더욱 무서운 게 언론의 '의제 조작'이다. 사람들은 보통 언론이 어떤 사건에 대해 어떻게 보도했느냐에 관심을 쏟는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언론이 어떤 사건은 보도하고 어떤 사건은 보도하지 않는 '의제 설정' 기능을 마음대로 행사한다는 점이다. 즉, '어떻게' 이전에 '무엇이' 사회적으로 논의되느냐 하는 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말이다.[12]

이씨의 성공비결은 단지 그의 문학적 재능에만 의존하는 건 아니다. 우리는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문학과 언론이 뜨겁게 유착돼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그 어떤 문인도 언론의 도움 없이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이걸 알아야 한다. 이씨는 그의 이념과 정치적 성향 덕분에 기존의 지배체제와 기득권 세력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 어떻게? 그 매개가 바로 언론이다. 우리 언론은 지배체제와 기득권 세력을 수호한다.[13]

위의 진술들을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장서와 관련시켜 다음과 같이 다시 해석해 볼 수 있다.[14] 먼저 처음의 진술처럼 한 문화인류학자가 우리 사회에 대해 내린 진단을 사실로 인정한다면,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장서가 다음과 같은 모습을 띠고 있을 가능성도 인정해야 한다.

공공도서관의 장서가 지배담론에서 규정한 단일한 모습으로 구축되어 왔고, 그래서 이용자를 주체성과 능동성을 잃은, 또 다양성이 결여된 형태로 존재하게 하는데 일조 해 왔다.

9) 이와미 다카시(石見尙), 『圖書館의 時代』(愚堂圖書館, 1994), 86-87쪽.
10) 조혜정, 『탈식민지시대 지식인의 글읽기와 삶읽기 2 - 각자 선 자리에서』 (또하나의문화, 1994), 159쪽.
11) 파울로 프레이리, 성찬성 역, 『페다고지』 (광주, 1986), 10-11쪽.
12) 강준만, 《인물과 사상 1》(개마고원, 1997. 1), 59쪽.
13) 강준만, 《인물과 사상 3》(개마고원, 1997. 8), 24쪽.
14) 이런 식의 논법은 김영민의 다음 글에서 따 왔다. 「기지촌의 지식인들 - 탈식민성과 우리 학문의 자생성」, 『탈식민성과 우리 인문학의 글쓰기』(민음사, 1996), 55-102쪽.

두 번째 진술에서는 침묵의 문화를 영속시키는 중요한 도구들 중의 하나로서 기존의 모든 교육제도를 들고 있다. 벨의 지적을 빌리면 이 '기존의 모든 교육제도'야 말로 현대 정보사회에서는 사회 계층화의 주요 인자가 된다. 공공도서관의 장서 또한 교육제도의 일부로서 유사한 기능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말 역시 공공도서관의 장서와 관련시켜 해석하면 다음과 같이 된다.

> 이제 사서들은 '침묵을 조장하는 장서'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무지와 무기력은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지배 및 가부장적 사회상황 전체에서 비롯되는 결과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그들이 구축해온 장서들이 이용자들에게 자기세계의 구체적인 현실들을 파악하고 대응하도록 갖추어지고 자극 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판적인 각성과 반응이 불가능한 상황 속에 '함몰시키는(submerge)'것이었다. 사서들은 기존의 대부분의 장서야말로 이 침묵의 문화를 영속시키는 중요한 도구들 중의 하나라는 사실을 명확히 알게 될 것이다.

언론의 의제 조작은 공공도서관의 장서선택에 연결된다.

> 공공도서관의 장서 하나하나가 갖고 있는 내용의 왜곡이나 편파성 보다 더욱 무서운 게 자료 선택의 '의제 조작'이다. 사람들은 보통 장서가 어떤 사건에 대해 어떻게 그리고 있느냐에 관심을 쏟는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공공도서관이 수서 과정에서 어떤 책은 구입하고 어떤 책은 구입하지 않는 '자료 선택' 기능을 마음대로 행사한다는 점이다. 즉, '어떻게' 이전에 '무엇이' 공공도서관의 서가에 배열되느냐 하는 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말이다.

마지막으로 지배체제와 기득권 세력을 수호하는 언론이 문학과 맺고 있는 관계는 그대로 공공도서관의 장서에도 연결되어 적용된다.

> 이씨의 책이 공공도서관의 장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단지 그의 문학적 재능에만 의존하는 건 아니다. 우리는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공공도서관의 장서가 언론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그 어떤 문학작품도 언론의 도움 없이는 공공도서관의 장서로 쉽게 채워지지 못한다. 이러한 작품들은 그 이념과 정치적 성향 덕분에 기존의 지배체제와 기득권 세력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 어떻게? 그 매개가 바로 언론이다. 우리 언론은 지배체제와 기득권 세력을 수호한다.

침묵을 조장하는 장서, 그래서 도서관 이용자의 주체성과 능동성을 갉아먹는 공공도서관 장서는 그 가능성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불경스러운 처사일지 모를 일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 가능성만큼은 남겨두어야 한다. 그것은 현대사회가 본질적으로 시장경제체제이고, 이 체제는 고도의 정보처리기구로서 자기변신을 거듭하고 있으며, 이 추세는 "지식의 조작에 드는 비용을 낮춰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을 지식인으로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15]

15) 복거일,「포스트모던 문화의 글쓰기와 저자」,《출판저널》제110호(1992. 7. 20), 14쪽.

결국 정보과다인 현대사회에서 '정보의 바다'와 '정보의 쓰레기' 중에서 그 어느 입장을 지지한다 하더라도, 어느 지식과 정보가 진실이며 유효한가를 선별하는 문제의식과 그 능력이 이 시대를 헤쳐 나가는 기본 화두임에는 틀림없을 것이다. 이에 대한 대답은 오랜 역사를 거치면서 축적된 지식과 정보 속에서 찾아져야 할 것이다.

3. 한국사회 지식흐름과 관련한 공공도서관 장서문제

지식·정보 집적의 전형적인 형태가 도서관의 장서라고 할 때, 도서관의 장서가 편견과 왜곡, 허위와 조작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는 도서관 자체가 현대의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자율성의 회복에 대해서 날카로운 문제의식과 행동양식을 지니는 것[16]이 그 전제조건이 된다. 그러나 이러한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지식과 정보의 축적은 개별적인 지식과 정보가 갖고 있는 편향이 단순한 축적 상태를 넘어 확대·증폭되어 있을 가능성이 상존하게 된다. 또한 그것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시인하고 그 위에 또 하나의 현실을 쌓아 올리려는 '기정사실화'의 연속형식[17]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만약 공공도서관의 장서가 이런 형식으로 축적되어 왔다면, 인간이 만드는 모든 문화의 역할이 그러하듯이 '비뚤어진 삶의 방식을 경고하고 교정하려고 하는 편보다 오히려 그것을 유지하고 조장하려고 하는 방향'[18]으로 흐르게 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실제 인류의 역사상 도서관의 장서가 때로는 효율적인 지배를 위한 이데올로기 교화의 수단으로, 또는 자본주의 경제발전을 위한 임노동자의 양성이라는 목적으로 적절히 통제되고 왜곡되기도 했던 사례들을 찾아내기란 어렵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런 식의 효용가치란 것은 한시적일 수밖에 없었음을 알 수 있다.

우리 사회의 지식흐름과 관련한 지금까지의 논의를 토대로 공공도서관 장서에 대해 다음과 같은 질문이 새롭게 제기되게 된다.

우선은 시대의 흐름에 따른 공공도서관 장서의 축적과정에 대해 제기될 수 있는 질문이다.

첫째, 과연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이 진실 되며 유효한 지식과 정보를 중심으로 장서를 구축해 왔는가?

둘째, 도서관의 장서가 수집과 축적과정에서 편견과 왜곡, 허위와 조작 등으로 인해 어떤 특정한 방향으로 치우치게 될 가능성이 실질적으로 존재하였는가? 만약에 그렇다면 그 정도와 실태는 어떠한가?

셋째, 한국의 현대 공공도서관이 이러한 가능성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해 요구되는 자율성을 얼마나 확보해 왔는가?

넷째, 공공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지식과 정보가 이 사회가 현실을 통제하는 하나의 방법으

16) 이와미 다카시(石見尙), 앞의 책, 7쪽.
17) 리영희, 『轉換時代의 論理 - 아시아·中國·韓國』(創作과 批評社, 1974), 24-25쪽.
18) 李五德, 『詩精神과 遊戲精神』 제5판. (創作과 批評社, 1990), 11-12쪽.

로 이용되었을 가능성은 없는가?

이러한 질문들은 도서관의 내·외부적 환경이 공공도서관의 장서의 축적과정에 미친 영향에 관련된 것으로서, 공공도서관의 장서정책이 내포하고 있는 편향성, 공공도서관 직원들이 갖고 있는 편견 등과 함께 주로 도서관의 사회사적 접근을 필요로 하는 질문들이라고 볼 수 있다.

다음은 축적된 결과로서의 공공도서관 장서에 대해 제기해 볼 수 있는 질문이다.

첫째, 공공도서관 장서가 갖고 있는 국가와 국가, 지역과 지역, 계층과 계급, 사회의 각 영역들 사이의 지식·정보의 양적·질적 차이는 어느 정도인가?

둘째, 문제에 접근하는 방법이나 관점에 있어서의 지식과 정보의 양적·질적 차이는 또 어느 정도인가? 다시 말해 공공도서관의 장서가 '침묵을 조장하는 장서' 쪽인가, 아니면 '비판적 각성'을 불러일으키는 쪽에 가까운가 하는 문제이다.

이러한 질문들에 관련된 것은 공공도서관의 현 장서에 대한 분석으로 그 정도를 밝혀낼 수 있을 것이다.

4. 공공도서관 장서연구 지평의 확대

앞에서 도서관의 장서가 편견과 왜곡, 허위와 조작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는 도서관 자체가 현대의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자율성의 회복에 대해서 날카로운 문제의식과 행동양식을 지니는 것이 전제조건이 된다고 말한 바 있다. 결과적으로 앞에서 제시한 여러 가지 물음들은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이 이러한 전제조건을 얼마나 충족시켜 왔는가 하는 문제로 귀착된다.

그러나 만일 이 문제를 가치판단의 영역으로 접근한다면 문제는 더욱 복잡해진다. 그것은 공공도서관 장서가 갖고 있는 진리와 허위를 판별할 수 있는 잣대가 될만한 사회적으로 합의된 가치관이 충분히 발현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시대정신으로도 대체될 수 있는 이러한 가치관은 우리나라의 파행적인 근대경험으로 제대로 형성되어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 즉 전통적인 가치관이 근대 의식으로 성숙되기 전에 식민지 상태가 초래되었으며, 이어서 타율적 해방, 민족분단, 전쟁, 급속한 자본주의화 과정 등을 겪는 동안 근대적인 시대정신이 제대로 뿌리내릴 토대가 될 만한 것이 없었던 것이다.

그 밖에도 이런 식의 접근방법이 안고 있는 관념성과 추상성의 문제도 극복해야 할 과제로 남는다. 그렇게 될 경우 제기된 모든 문제에 대해 명쾌한 답을 내리기는 사실상 어려워지며, 어쩌면 상당한 부분이 문제제기 수준에서 그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런 점들을 효율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접근이 시도되어야 한다. 이러한 접근방법으로 대표적인 공공도서관을 사례도서관으로 선정해, 그 도서관의 장서를 중심으로 공시적·통시적 접근을 시도하는 작업을 상정해 볼 수 있다.

이러한 모델이 될 수 있는 공공도서관은 시대의 흐름에 따른 장서의 변천과정을 살펴볼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역사를 갖고 있어야 하며, 그에 걸맞은 적당한 장서규모를 갖고 있는 도서관

이면 족할 것이다.

1) 도서관의 사회사

첫 번째 과제는 그 도서관의 역사를 기술하는 작업이다. 도서관의 역사를 살펴보는 것은 그 도서관의 장서를 보다 다양한 층위와 관점에서 분석해 내기 위한 바탕이 될 수 있다. 또한 도서관 중심의 단선적인 기술보다는 사회사적인 접근을 통해 도서관과 사회와의 관련성을 부각시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사회사적 접근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논의하기로 한다. 사례 도서관에 대한 사회사적 기술에는 다음의 영역들이 포함된다.

우선은 도서관 운영과 관련된 역사에 대한 기술이다. 여기에는 도서관 운영주체의 변천 과정과 건물과 시설의 추이, 자료의 정리라든가 열람 형태의 변화 과정, 그리고 관련 법규의 마련 과정 등에 대한 기술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도서관의 운영 주체가 바뀐다든지, 이전이나 개관 사례, 자료의 정리나 열람방식의 변화 등에 대한 확인은, 사회적·역사적 사실에 대한 기술의 필요성과 함께 도서관 장서의 본질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길잡이가 될 것이다.

다음은 이 도서관을 거쳐갔던 사람들에 대한 사회사적 기술이다. 이 부분에서는 시기별 도서관 직원의 실상을 살펴보기 위한 것으로서, 정원 책정 과정과 직원 채용의 방식, 도서관직에 발을 들여놓게 된 동기를 비롯한 도서관직에 대한 의식적인 측면 등이 포함된다. 시기에 따라서는 도서관직에 대한 자부심이나 열등의식[19]이 뚜렷이 드러나는 때도 있었을 것이며, 이러한 요인들을 살펴보는 것 역시 장서의 실상을 파악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 중의 하나가 된다.

또 하나는 장서에 대한 사회사적 기술이다. 여기에는 주로 사회사와 관련하여 시기별 장서의 특징과 큰 흐름을 중심으로 기술되며, 자료량에 대한 계량적 기술도 필요한 만큼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한편 여기에 공공도서관의 제4요소라고 할 수 있는 이용자에 관련된 항목이 기술대상에서 빠져있다. 그것은 이용자의 요소가 다른 요소들에 비해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장서형성에 미친 요인이 사실상 약할 뿐 아니라, 다른 요소들에 상당 부분 흡수되어 나타나기 때문이다. 오히려 우리나라의 경우 도서관 외적인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해 왔다는 사실도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2) 장서형성의 실존적 요인

두 번째 과제는 장서의 축적과정에 영향을 미친 사건이나 요인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분석하는 작업이다.

원칙적으로 도서관의 장서는 그 도서관이 추구하는 목적과 대상 이용자의 요구를 두 축으로 하여 축적된다. 도서관 자료의 선택이나 평가에

19) 도서관직에 대한 자부심이 표출된 경우는 흔하지는 않지만 부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부산시립도서관의 내규로 1965년 제정된 <職員讀書會規約>은 매우 높은 수준의 도서관직에 대한 자긍심을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만하다. 이와 반대로 도서관직에 대한 열등의식은 여러 측면에서 관찰된다. 도서관직에 발을 들여놓은 동기가 그렇고, 기회만 있으면 다른 직군으로 옮겨간 숱한 사례가 그렇다. 이에 대한 보다 실증적인 분석이 이 부분에서 다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관련된 이론들도 이와 같이 가치론과 목적론을 한 축으로 하고 이용자 요구론을 다른 한 축으로 하여 발전해 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와 같은 도서관 내적인 요인들보다는 도서관 장서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 환경적 요인이 더 결정적인 영향을 미쳐왔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실은 도서관의 사회사를 기술하는 과정에서 확인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에서는 장서의 축적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내·외부적 요인들 중에서 사회 환경적 요인에 중점을 두고, 그러한 요인들이 내포하고 있는 성격과 그것이 그대로 도서관의 장서에 반영되는 과정을 그리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 현대 공공도서관사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사건으로서 1970년대 중반에 있었던 '도서 변상 사건'과 1970년대와 1980년대의 족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금서 사건'을 들 수 있다. 이 두 사건은 둘 다 정치 논리로밖에 해석될 수 없는 문제로서,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장서가 특정한 방향으로 치우치게 형성되는데 커다란 파장을 불러일으켰으며, 지금까지 중견 사서들의 행동반경을 제약하는 금기(禁忌)로 남아있음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사건들에 대한 분석이 끝난 다음은 도서관의 장서 선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목록들이 갖고 있는 성향에 대한 분석으로 이어진다. 여기에 고려할 만한 목록들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첫째는 베스트셀러 목록이다. 이것은 독자들이 작품에 대해 갖고 있는 취향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만일 독서환경이 참된 작품을 수용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는 경우라면 독자들의 작품에 대한 취향을 보다 비판적으로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공공도서관 장서의 축적과정을 들여다보면, 베스트셀러는 우리나라 공공도서관 장서의 특징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가장 우선 순위로 선정되는 자료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베스트셀러 목록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 목록이 갖고 있는 경향을 추적함으로써 우리나라 공공도서관 장서가 품고 있는 성향의 일면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베스트셀러가 독자보다는 다른 요인에 의해 만들어져 왔다는 사실과, 독자들로부터 쉽게 외면 당해 온 이유를 각종 광고 분석과 스테디 셀러와의 비교 등의 다각적인 접근을 통하여 살펴볼 것이다. 이 부분에서 분석할 스테디 셀러로는 여러 곳에 스테디셀러 목록으로 올라와 있는 샘터사의 『아이는 이렇게 키워라』, 『법정에세이』, 창착과비평사의 『농무』, 『객지』, 『전환시대의 논리』, 『몽실언니』, 문학과지성사의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광장/구운몽』, 한길사의 『우상과 이성』, 『해방 전후사의 인식』, 『뜻으로 본 한국 역사』 등을 들 수 있다.

둘째는 추천도서 목록이다. 추천도서 목록은 권장도서 목록 또는 필독도서 목록 등의 이름으로도 나타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각종 도서관련 상을 수여함으로써 비슷한 효과를 내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권장도서 목록 역시 다분히 독자들의 기호에 영합하는 작품이 권장되는 경향이 부분적으로 발견되기도 한다.

여기서 살펴볼 수 있는 것으로 1962년에 제정된 한국일보의 '출판문화상', 문화체육부에서 1968년 이후 발표해 오고 있는 '올해의 추천도서',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출판협회에서 주관하는 '자유경제출판문화상', 문예진흥원의 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 발표하는 '청소년 권장도서목록', 그리고 새마을중앙회의 '우량도서 선정목록' 등을 들 수 있다. 여기에 또 하나 빼 놓을 수 없는 것이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실시하는 '독서교실 선정목록'이다. 독서교실 행사는 전국 공공도서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벌이는 행사로서 이 목록에 포함된 자료는 거의 빠지지 않고 공공도서관의 장서로 채워지기 때문이다.

셋째는 그 밖의 요인들로서 각종 도서선택에 관련된 이론들과 서점상, 작은도서관과 도서원 등에 대한 고찰이다. 여기서 도서선택의 제이론이란 교육주의적 양서론, 요구론, 적서론, 필요성론, 가치론 등을 말하며, 실질적으로 이런 이론들이 공공도서관의 장서정책에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환경적 요인들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또한 작은도서관과 도서원의 존재 역시 도서관의 장서구성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그 외 서점상과의 관계 등도 부분적으로 다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3) 장서의 성향

세 번째 과제는 실제 도서관 장서를 분석하고 기술하는 작업이다. 우선 양적 기술로서 국가와 국가, 지역과 지역, 계층과 계급, 사회의 각 영역들 사이에 드러나는 도서관 자료의 양적 차이에 대한 기술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자료의 양에 대한 단순한 기술이라기 보다는 내용에 대한 검토가 수반되어야 하는 너무나도 방대한 작업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검증작업은 시론적인 수준에 머물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도서관 장서가 내포하고 있는 문제접근 방법이나 관점에 있어서의 정보의 양적·질적 차이를 밝히는 작업에 보다 치중할 필요가 있다. 이 작업 역시 방대한 작업이기는 마찬가지이므로, 이러한 경향들이 비교적 뚜렷이 드러나는 분야를 추출해 내어 이를 중심으로 앞에서 제기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는 방식으로 진행해 나가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가능한 하나의 과정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표본으로 선정된 저작들에 대한 분석이다. 즉 이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삶의 방식, 사용된 소재, 문장형식, 사물과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 등에 대한 분석 작업을 한다.

② 이 작업을 통해서 선정된 저작을 몇 개의 범주로 구분한다. 여기서 다수를 차지하는 범주에서 '주류개념'을, 그리고 소수를 차지하는 범주에서 '대항개념'을 도출해 낸다.

③ 주류개념과 대항개념의 핵심저자를 추출해 낸다.

④ 이를 통해 표본으로 추출되지 않은 핵심저자의 다른 저작을 찾아낸다.

⑤ 주류개념과 대항개념을 대응시키고, 도서관 장서의 사회사, 도서관 장서형성의 실

존적 요인 등과 연관시켜 다양한 관점으로 해석해 낸다.

⑥ 이러한 작업을 통해서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장서더미에 나타나는 일정한 흐름이나 경향을 도출해 낸다.

⑦ 마지막으로 공공도서관의 장서에 바람직한 경향을 구현하기 위한 실천 전략을 모색해 본다.

5. 공공도서관 장서 들여다보기

이런 식의 연구는 우리나라 공공도서관 장서에 대한 사회사적 기술이면서 동시에 공공도서관 장서의 현단계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다. 즉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장서에 씨줄과 날줄을 퉁겨놓고 앞에서 제기한 문제들을 풀기 위한 과제를 수행해 나가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연구가 현장을 들여다보는 방법론은 크게 '사회사적 접근'과 '현단계 연구'의 두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우선 역사적 접근, 특히 사회사적 접근을 강조하는 것은 이런 연구가 우리나라 공공도서관 장서의 현단계를 규명하는 작업의 일환이기 때문이다. 즉 오랜 세월동안 축적되어 온 결과로서의 공공도서관의 장서가 갖고 있는 성향, 다시 말해 이데올로기적 또는 인식론적으로 어떤 입장에 치우쳐 있으며, 그 편향의 정도와 본질을 밝혀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당연한 과정으로서 공공도서관 장서의 축적 과정에 관심을 갖게 되며, 그것은 역사적 접근을 요구한다. 역사적 접근은 어떤 사실의 형성과정을 풀어내는데 유용한 방법이기도 하지만, 이 연구와 같이 가용자료나 선행연구가 별로 없는 조건에서 연구를 진행시키는 경우도 매우 적절한 연구방법이 된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대부분의 도서관의 역사에 관련된 기술은 도서관 자체에 대한 제도사적인 측면이 강조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접근 방법은 '달동네 사람들이 못사는 이유를 탐구하기 위해 달동네만 파고들면 답이 나오지 않거나 틀린 답이 나오는 것과 비슷'한 오류를 범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에 '부정축재 또는 부동산 투기 등과 같은 방법으로 떼돈을 버는 사람들을 연구하는 것이 더 나은 방법'[20]일 수 있는 것처럼, 도서관도 그 내적 측면으로부터 해방시켜 폭넓은 사회·역사적 자장 안에 놓는 사회사적인 접근의 필요성이 제기되게 되는 것이다. 요컨대 도서관이 사회적 기관이라는 기본명제를 확인하고, 도서관을 그 근저에서 유지·변화·발전시키는 구체적인 사회적 역학관계를 확인케 만듦으로써 도서관 발전의 실질적 동력을 규명할 수 있게 된다[21]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정치논리와 경제논리가 다른 모든 논리에 우선해서 사회의 전 영역을 지배하고 있는 상황에서의 단선적인 역사기술은 명확한 한계를 노정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20) 강준만, 《인물과 사상 2》(개마고원, 1997. 6), 57쪽.

21) 이현식, 「한국 근대 문학 형성의 사회사적 조건」, 『민족문학과 근대성』(민족문학사연구소 엮음, 문학과지성사, 1995). 67-68쪽.

공공도서관의 경우만 보더라도 도서관 내부의 요인들보다는 사회적 역학관계라는 보다 큰 틀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면서 변화·발전해 왔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사회를 배제하면서 쓰는 역사 기술이라든가, 우리의 도서관 현실을 문화적으로만 이해하려고 한다면 자포자기와 패권주의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22] 사회사적 접근방법의 유용성이 여기에 있다.

다음은 현단계 연구에 관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글[23]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 낙후한 현장, 거기다 참고문헌마저 빈약한 상황에서 어떻게 연구다운 연구가 가능할 것인가. 그래서 연구자의 시각을 우리의 현실, 우리의 문헌세계로 이동시켜 맞춘다고 했을 때 바로 문제점으로 떠오르는 것이 연구를 수행하는 방법론이었다. 어떻게 참고문헌을 구하며 어떤 연구기법을 활용하여 연구를 추진하여 그나마 현실개척에 의미 있는 결과를 생산해 내느냐의 문제였다. 여기서 필자들과 주변의 젊은 연구자들이 공동으로 개발해낸 것이 '현단계 연구'(studies of the present developmental stage)라고 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쉽게 말해 눈앞에 있는 현실을 그대로 기술해 내자는 것이었다. 그렇게 함으로써 현실의 문제 자체 속에 함장 되어 있는 해답이 떠오르게 하자는 것이었다. 그것은 가설을 설정하고 그것을 통계적으로 입증하는 형식을 따는 이른바 '과학적' 방법과는 거리가 있었다. 현단계 연구는 구조적으로 몇 가지 특징을 가지는 것이었다. 우선 태생적으로 그것은 우리 현장에서 논제를 건져 올리도록 했다. 처치과정으로는 주로 질적 방법을 취했다. 왜냐하면 다양한 드라마를 품고 있는 현장을 사실적으로 그려내기에는 연구자의 통찰력을 십분 활용할 수 있으며 특수성에 대한 해석의 여지가 있는 질적 기법이 안성맞춤이기 때문이었다. 더구나 이미 생산되어 있는 연구문헌들에 창의성이 결여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현장에 대한 관찰이라든가 인터뷰 기법은 연구자가 자료확보를 위해 의존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일 수밖에 없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결과를 제시하는 문체 문제였다. 우리 현장의 현단계를 있는 그대로 그려내어 그 속에 배태되어 있는 드라마를 노출시키기에는 이른바 간결한 논문문체는 부적절했다. 복잡한 내용을 담아내는 데는 복잡한 그릇이 필요했다. 그래서 다양한 문체의 실험이 요구되었다. 이 대목에서 '잡스러운' 글쓰기라는 기법이 채택되기도 했다.

여기에는 하나의 연구방법론으로서 현단계 연구의 필요와 특성이 잘 나타나 있으며, 현장 중심의 논제설정과 질적 방법론 채택, 그리고 그것을 글로 그려내는 기술 등을 중시하게 된 과정이 드러나 있다. 연구의 효과적 진행을 위해 주로 '사려 깊은 관찰'과 '효과적인 면담'을 통하여 새로운 자료들을 다양하게 발굴하고, '특수성에 대한 해석의 여지가 있는' 질적 연구[24]를 채택하게 되는 배경도 이와 같은 것이다.

---

22) 강준만, 위의 책, 29-30쪽.

23) 김정근, 박인웅, 「한국사회과학의 탈식민성 담론에 관한 서지 연구, 1945-1995」, 《韓國民族文化》(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제10집(1997. 12).

한편 사정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는 기록된 문서자료 보다는 이 시기를 몸으로 헤쳐나갔던 사람들의 증언에 보다 치중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20세기 들어 90년 이상을 표현의 자유를 누리지 못한 우리나라에서 자료에만 근거하는 역사는 원초적으로 왜곡될 수밖에 없다'[25]는 한 언론학자의 지적처럼, 결재라인을 통한 업무보고 문서[26]에는 드러나지 않는 진솔한 이야기가 인터뷰 내용 속에 담겨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6. 마무리

지금까지 현대사회에 있어서 지식·정보의 왜곡 현상과 이 현상이 공공도서관 장서의 굴절이나 편향에 관련되었을 가능성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접근방법에 대하여 말해 보았다.

우리나라의 현대사를 살펴보면, 극좌 노선에서 극우까지 아우르는 그야말로 이데올로기의 백가쟁명 시대였던 1920년대를 거쳐, 그 이후 대부분의 시기는 모더니즘과 패배주의, 복고주의, 현실도피 경향, 탈정치화, 개인의 출세와 생존 중시, 이념적 지표의 상실 등이 어울려 우리 사회의 '주류 담론'을 형성해 왔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1920년대와 1980년대는 우리 현대사에 나타난 하나의 예외적인 상황에 해당한다.[27] 물론 이런 현상은 궁극적으로는 자본주의의 세계체제 속에서 형성된 냉전논리와 그것의 한국적 발현 형태인 분단이데올로기의 반영이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 사회의 지식과 정보의 흐름을 심각하게 굴절시킨 근본 요인이 되어 왔던 것이다.

---

24) 질적 연구나 참여관찰과 관련된 다양한 기법은 다음의 자료에서 구할 수 있다.
김정근 편, 『학술연구에서 글쓰기의 혁신은 가능한가』(한울, 1996)
Sharan B. Merriam, 『Case Study Research in Education : A Qualitative Approach』 (San Francisco : Jossey-Bass Publishers, 1988); 허미화 역. 『질적사례연구법 - 교육학에서의 -』 (양서원, 1994).
James P. Spradley, 이희봉 옮김, 『文化探究를 위한 參與觀察方法(Participant Observation)』, 제4판.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1995).
James P. Spradley, 『The Ethnographic Interview』 (Harcourt Brace Javanovich College Publishers, 1979).

25) 강준만, 위의 책, 35쪽. 이 인용문에 연결된 말은 다음과 같다. "게다가 기존의 역사란 민초의 수난과 고통은 기록하지 않고 그들의 땀과 피 위에서 구축한 실적만을 기록하는 법이다. 그 실적을 과대 포장한 문건들을 한 아름 끌어안고 박정희를 재평가하자고? 그건 똥간의 휴지를 끌어안고 인간을 재평가하자는 것만큼이나 한심한 일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26) 이와 관련하여 도서관의 <업무일지>를 예로 들어보자. 도서관에 따라 업무일지의 양식은 조금씩 다르지만 대체로 자료실별 장서현황, 자료실별 이용현황, 유별 열람현황, 유별 대출현황, 직업별 열람현황, 유형별 참고질의 건수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 항목들 중에서 특히 유별 열람현황의 경우 그 정확한 이용자 수나 열람된 장서수를 파악하기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 다만 대체적으로 어느 부분이 많이 이용된다는 것 정도만 파악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도 업무일지에는 마지막 단위까지 '정확한' 수치가 기록되고, 이렇게 기록된 수치는 일일누계, 월말통계, 연간 누계 등의 형식으로 정리된다. 심지어 어떤 경우는 그 수가 의도적으로 부풀려지는 조작과정을 거치기도 한다. 이처럼 열람과 서무담당 직원의 경우 아침마다 숫자 끼워 맞추기에 골머리를 앓으며, 주무와 과장의 도장을 받으러 다닌다. 이런 식으로 작성된 업무일지가 도서관 장서의 이용에 관련된 각종 연구에서 기본 자료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27) 김동춘, 김성기 <좌담>, 「가망 없는 시대에 맞서는 한 사회과학자의 외침」, 《현대사상》제1권 4호(1997 겨울), 228-229쪽.

이런 사회·역사적 상황은 공공도서관의 장서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주류 담론' 중심의 편향된 장서를 구축해 왔으며,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장에서 자유로운 상상을 할 수 있게' 도와야 할 공공도서관의 장서가 오히려 '사회현상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려는 일'[28]을 수행해 왔던 것이다.

따라서 공공도서관 장서의 축적과정을 한국사회 지식흐름의 문제라는 도서관을 둘러싼 사회·역사적인 틀 속에서 재조명해 보는 작업이 새로이 요청되며, 그것은 현대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자율성의 회복과 관련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운영과 직원, 그리고 장서에 대한 사회사적 접근과, 축적된 결과로서의 장서의 성향에 대한 현단계 연구가 새로운 연구과제로 제시되었으며, 연구방법에 있어서도 사려 깊은 관찰과 효과적 인터뷰 기법을 통한 현단계연구가 요청되는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공공도서관의 장서에 시대정신의 안착을 통한 지식자원의 적극적 관리라는 개념의 도입을 준비하는 과정임과 동시에, 공공도서관 장서연구의 지평을 확대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강준만. 《인물과 사상》1-4권(1997. 1 - 11). 개마고원.

김동춘, 김성기 <좌담>. 「가망 없는 시대에 맞서는 한 사회과학자의 외침」, 《현대사상》제1권 4호(1997 겨울).

김영민. 『탈식민성과 우리 인문학의 글쓰기』. 민음사, 1996.

김정근 편. 『학술연구에서 글쓰기의 혁신은 가능한가』. 한울, 1996.

김정근 편. 『디지털 도서관 - 꿈인가, 광기인가, 현실인가』. 민음사, 1997.

김정근, 박인웅. 「한국사회과학의 탈식민성 담론에 관한 서지 연구, 1945-1995」, 《韓國民族文化》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제10집(1997. 12).

리영희. 『轉換時代의 論理-아시아·中國·韓國』. 創作과 批評社, 1974.

李五德. 『詩精神과 遊戲精神』(제5판). 創作과 批評社, 1990.

이와미 다카시(石見尙). 『圖書館의 時代』. 愚堂圖書館, 1994.

이현식. 「한국 근대 문학 형성의 사회사적 조건」, 『민족문학과 근대성』(민족문학사연구소 엮음), 문학과지성사, 1995.

조혜정. 『탈식민지시대 지식인의 글읽기와 삶읽기 2-각자 선 자리에서』. 또하나의문화, 1994.

파울로 프레이리. 성찬성 역, 『페다고지』. 광주, 1986.

28) 조혜정, 위의 책, 277쪽.